

누가복음 20-21
Tape #C2539
By Chuck Smith.

We are in the final week of the life of Jesus. He is now in Jerusalem. This is the week in which pilgrims are coming from all over the world to celebrate the Feast of the Passover. He has made His triumphant entry, that is on Sunday. He was officially rejected. He did cleanse the temple, driving out the moneychangers, taking authority in His Father's house. And He taught daily in the temple, we read in verse 47 of chapter 19.

이제 예수의 생애의 마지막 주간에 있습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이 주간에 순례자들이 유월절을 지내려고 온 세계에서 몰려 옵니다. 주께서는 일요일날 승리자로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버림 받았습니다. 그는 성전을 청소했으며 돈 바꾸는 자들을 몰아내고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권위를 취합니다. 그는 성전에서 매일 가르쳤음을 19장 47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So it came to pass, that on one of those days (20:1),

The days that He was teaching in the temple from Sunday through Wednesday or Thursday, "...one of those days,"

as he was teaching in the temple, and preaching the gospel (20:1),

Proclaiming to man God's good news.

때가 차매 하루는 (20:1),

성전에서 주일부터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 가르치시던 날들 "...그 날들 중의 어느날"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20:1),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came upon him with the elders (20:1),

So this august body of religious authority, the chief priests who were mainly Sadducees, the scribes and the elders.

And they spake unto him, saying, Tell us, by what authority do you do these things? and who is he that gave you this authority? (20:2)

They're probably still a little upset over the fact that He cleansed the temple. He drove out the moneychangers. He came in and took over and said, "This is my Father's house," and He took over. And they were upset because the high priest was in league with the moneychangers. They made a rake off of the moneychangers and those that sold the doves and the oxen and all there in the temple grounds. And so what authority?

저희들은 주께서 성전을 정리하셨다는 사실로 인해 아마 아직까지도 화가 나 있었을 겁니다. 주께서 돈 바꾸는 사람들도 내어 쫓았습니다. 그가 들어 오셔서 둘러본 다음 “이 곳은 내 아버지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은 대 제사장과 결탁되어 있었음으로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돈 바꾸는 사람들로 부터 배당금을 받았고 성전 마당에서 비둘기와 황소나 모든 파는것에 대한 배당금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합니까?

Now they were expecting, or at least hoping...you see, they're looking now for charges whereby they might put Him to death, and they were hoping that at this point He would say, "I am the Messiah. God is my Father. He gave Me the authority." He referred to the temple as "My Father's house," and so they were hoping that He would make the claim of Messiahship in order that they might accuse Him of blasphemy and immediately try Him. But His hour was not yet come. So He did not answer them directly, but

he answered them [indirectly], saying, I will ask you one thing; and you answer me: The baptism of John, was it from heaven, or of men? And they reasoned with themselves, saying, If we shall say, From heaven; he will say, Why did you not believe him? If we say, Of men; all of the people will stone us: for they're persuaded that John was a prophet. And they answered, that they could not tell whence it was. And Jesus said unto them, Neither tell I you by what authority I do these things (20:3-8).

그를 죽이기 위해 고소할만한 것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고 적어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시점에서 바랐던것은 그가 “나는 메시아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다. 그가 내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 라고 말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의 집이라” 고 말했으므로 그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면 저들이 그를 불경죄로 고소하여 당장 재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설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0:3-8).

Now, John had testified concerning Jesus Christ that, "This is He that was after me, but who was preferred before me, the latchet of whose shoes I'm unworthy to unloose" (John 1:27). John had declared concerning Jesus Christ, "Behold, the Lamb of God that taketh away the sins of the world" (John 1:36). So, John, who the people had accepted as from God, they recognized that John's authority was from the Lord. And John, being recognized by the people as the prophet of God, had declared that Jesus was indeed the Lamb of God to take away the sins of the world. So had they said, "Well, John was of the Lord," then Jesus would say, "All right, that's the authority that I have, the same authority of John's." And basically He was saying this, "I came with the same authority that John came."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말하기를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 나 는 그의 신들메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요 1:27).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1:36).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으로 받아 드렸고 그들도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 에게서 부터 왔다고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인식 했던 요한이 예수는 진실로 세상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외쳤던것 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은 주님께게로 부터 왔다” 라고하면 예수께서 “좋다, 내가 가진 권위도 요한이 가졌던것과 똑 같아” 라고 말할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나도 요한이 가진 권위와 똑 같은 권위를 가지고 왔어” 라고 말하는것입니다.

Now, it is interesting to me how that so often there is that challenge today concerning authority. For men have set up their systems by which they recognized authority. “If you go to our college and graduate and then attend our seminary, then we will recognize your authority to teach the Word of God, or to proclaim God's truth,” and the authority that man bestows upon man. I would like to offer my opinion that men have ordained many men to the ministry who have never been ordained by God. They've been ordained to the ministry purely on the basis that they have fulfilled a certain requirement of studies. But there is absolutely no anointing of God upon their lives or upon their ministries, and they'd be better off selling shoes. Or I should say maybe repairing shoes, and that's a better way that they could save souls.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날도 권위에대한 도전이 빈번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인정하는 권위로 그들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만일 네가 우리 대학과 대학원에 가면 우리 신학대학원에 다녀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선포할수 있는 권위를 인정하겠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권위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이 안수하시지도 않은 많은 사람들을 사역에 임명하는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순전히 학업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안수를 받은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나 사역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신발 장사하는것이 나을것입니다. 아니면 구두 수선을 하든지 그것이 그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 할수있는 더 나은 길입니다.

We have made it a policy here at Calvary Chapel in the ordination board to observe a person's ministry and to see if their ministry bears witness that God's anointing is upon their life. For we are convinced that only God ordains a man for the work of the Lord, and the best we can do is ratify what God has done. So basically, we haven't ordained anybody to the ministry, nor do we ordain anybody to the ministry. But we like to recognize those that God has ordained and ratify that work of God in their lives. So, recognizing that God has ordained this man, God's anointing is upon his life, God is using him, we give to them that recognition that they need by the state. But it is interesting also how that so many of these young men who have gone out with the obvious work of God in and through their lives are challenged, "Who gave you the authority?"

갈보리채플의 안수회에서는 정책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사역을 관찰하여 만일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증거가 사역에 나타나는지를 보게합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이 안수하시며 우리가 할수있는 최상의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준하는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무도 사역하도록 안수하지 아니 하였고 또 현재도 아무든 사역하도록 안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수하신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비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안수하셨고 기름을 부어 사용하신다면 주정부에서 인정하는 것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러나 재미있는것은 이 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갈때 사람들이 도전해 옵니다 "누가 너에게 그 권위를 주었니?" 라고.

Greg Laurie has been challenged so many times. Raul Ries has been challenged so many times. "Where did you go to seminary? Who gave you the authority?" It's sort of disconcerting and upsetting to these men with their doctorates in theology that some young kid can come into town and start a Bible study that grows into a church of over 5,000 members. When with all of their degrees and learning and knowledge of the Greek and Hebrew and so forth, they have a hard time, through pushing and programming and every guise and device that you can think, maintaining 400 or 500 people. "It's just not fair! After all, I've been trained." The authority!

그렉 로리는 수 없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라울 리스도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느 신학교를 다녔니? 누가 네게 그 권위를 주었니?" 어떤 젊은 아이가 동리에 들어와서 성경공부를 시작하여 5,000명이 넘는 교회로 자라는것이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진 이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마음을 흔들여 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지식과 모든 그들의 학위와 배운것으로 그들이 어렵게 사역할때 프로그램과 생각할수 있는 모든 구실과 궁리를 다하여 400 명 내지 500명을 겨우 유지합니다. "공평하지 않아! 나는 모든 훈련을 다 받았는데." 그 권위!

Now, the Mormons quite often ask this question, because they believe that God has restored the authority to the church through Joseph Smith. And that the twelve apostles of the Mormon church are the only ones who can actually bestow authority upon a person to minister the gospel. And so they do not recognize the authority of anyone who has not been sanctioned by the twelve apostles of the Mormon church; for everybody knows that they are the only true church. And so they quite often challenge, "By what authority?" So, Jesus went through the same thing.

몰몬교회는 빈번히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교회에게 권위를 회복시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몰몬 교회의 12 사도가 복음 사역을 할수있도록 권리를 위임할수 있는 사람들이라는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몰몬 교회의 12 사도가 허락하지 아니한 어떤 사람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그들만이 유일한 진실된 교회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무슨 권위로냐?" 그래서 예수께서 똑같은 것을 겪었습니다.

Then he began to speak to them a parable; A certain man planted a vineyard, and he let it out to husbandmen, and he went into a far country for a long time (20:9).

Note: Jesus is now giving a parable that relates to His going away. Letting out: it's a twofold interpretation, actually, because it also is a parable against these Pharisees.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2:9).

주의사항: 예수께서 그의 떠나심과 관련된 비유를 말씀 하십니다. 이 비유는 실제로 이중 해석이 나올수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거슬리는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At the season he sent a servant to the husbandmen, that they should give him of the fruit of the vineyard: but the husbandmen beat him, and sent him away empty. And he again he sent another servant: and they beat him also, and entreated him shamefully, and they sent him away empty. And again he sent a third: and they wounded him also, and cast him out. Then said the lord of the vineyard, What shall I do? I will send my beloved son: it may be that they will reverence him when they see him. But when the husbandmen saw him, they reasoned among themselves, saying, This is the heir: come, let us kill him, that the inheritance may be ours. So they cast him out of the vineyard, and killed him. What therefore shall the lord of the vineyard do unto them? He shall come and destroy these husbandmen, and shall give the vineyard to others. And when they heard it, they said, God forbid. And he beheld them, and said, What is this then

that is written, The stone which the builders rejected, the same is become the head of the corner? Whosoever shall fall upon that stone shall be broken; but on whomsoever it shall fall, it will grind him to powder (20:10-18).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찜이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20:10-18).

Now, in the fifth chapter of Isaiah, the Lord speaks there a parable through Isaiah of a vineyard. And the vineyard was the nation of Israel. How that this man planted a vineyard, he put the choicest vines in it, he built a hedge around it and he put a wine press in the middle. And when the time came to gather fruit from the vineyard, there was nothing but wild grapes on the vine. And so he let the vineyard go. And the prophet was speaking about how that God had set apart the nation Israel that it might bring forth fruit unto God. But their failure to bring forth that fruit that God was desiring from them would bring actually a rejection by God, or just being let go by God, and their demise.

이사야 5장에 여호와께서 포도원에 대하여 비유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극 상품 포도를 심고 울타리를 쳤으며 그 가운데 술틀을 만들었습니다. 때가 되어 포도원에서 열매를 거두웠을때 포도 나무에 달린것은 들포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황폐하게 버려 두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열매를 가져올까하여 그 백성을 구별하신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가져 오지 못한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버리신것 혹은 황폐케 버려 두신것이며 포기하신 것입니다.

So when Jesus began to speak the parable of the vineyard, aware of the prophecy of Isaiah, their minds flipped back and they realized that He's talking now about the nation of Israel, God's vineyard. The servants that were sent to the vineyard were the prophets who were rejected by the people. Some of them were stoned, others of them were killed; Isaiah was actually sawed in two. And so, these are the prophets that God

sent to the nation. Finally, God sent His only begotten Son. "Surely they will reverence Him." But the husbandmen, when they saw Him, said, "This is the heir; let's kill Him, that the inheritance may be ours." And so Jesus, here, is predicting His death at their hands.

예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했을때 이사야의 예언을 깨닫고 마음에 깨달음이와서 그가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 백성에 관하여 말씀하시는것을 깨달았습니다. 포도원에 보낸 종들은 사람들에게 거절 당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의 어떤 사람들은 돌로 맞아죽고 또 다른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사야는 톱으로 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예언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의 유일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저희가 그는 틀림없이 공경하리라." 그러나 농부들이 그를 보고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여기서 그들의 손에 당할 그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Now, the result of their rejection of the Son, The commandment of the Lord--destroy the husbandmen. The nation of Israel was destroyed by Titus. Josephus said that he killed 1,100,000 Jews and they carried 97,000 as slaves to Rome. When they heard this, they said, "God forbid!" For they recognized that Jesus was speaking about them. And so then He asked them, "What does this parable mean? That which is written, 'The stone which the builders have rejected, the same is become the chief cornerstone?'" Psalm 118.

그 아들을 거절한 결과로 주님의 명령은 그들을 진멸하는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디도 장군에 의해 멸망 당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가 110 만명을 죽였고 구만 칠천명이 노예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것을 들었을때 "그렇게 되지 말찌 어다!" 그들은 예수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 다음 주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느뇨? 기록된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시 118).

Now Peter, in the fourth chapter of Acts, when he was standing before the elders and the scribes and the high priest, this same group that was challenging Jesus here, when Peter stood before them in Acts the fourth chapter, they were asking Peter, "By what authority did you work this miracle on this lame man? By what name or by what power have you done this?" So they were giving him much the same business as they gave to Jesus. "We want to know, by what power did you do this? By what name?" And Peter said, "Ye men of Israel, if we have been examined this day because of the good deed that has been done to this lame man, you judge for yourselves on that. But be it known unto you that it is by the name of Jesus Christ that this man stands before you whole, and this is the stone which was set of naught by you builders, but He has become the chief cornerstone, and neither is there salvation in any other. For there is no other name given among men whereby we must be saved" (Acts 4:8-12).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 제사장앞에 섰을때 예수에게 도전했던 같은 무리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기적을 이 앉은뱅이에게 행하였느냐? 너희가 무슨 이름으로, 무슨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은 예수에게 행하였던것과 똑같이 그에게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저 하니,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무슨 이름으로?” 그리고 난후 베드로가 “ 이스라엘 사람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 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행 4:8-12).

So Peter was here when Jesus was challenged concerning authority. He remembered the answer of Jesus to these men. He remembered this parable that Jesus ended by saying unto them, "What does this mean, 'The stone that was set of naught by the builders, the same has become the chief cornerstone'?" And so Peter brings it right back to them very forcibly, declaring of Jesus, "This is the stone which was set of naught by you builders, but the same is become the chief cornerstone."

예수께서 권위에 대하여 도전을 받으셨을 때 베드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신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 비유를 끝내셨는지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는 말이 무슨 뜻이뇨?” 그래서 베드로는 대단히 힘있게 예수께서 선언 하신것을 꺼집어 냈습니다. “이 돌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Now Jesus declaring, concerning that stone, said, "Whosoever shall fall upon that stone shall be broken, but upon whomsoever that stone shall fall, it will grind him to powder." You have one of two relationships to Jesus Christ: either that of submitting to Him, falling upon the stone, or resisting Him, and ultimately being ground to powder. Woe unto him who strives with his maker! Many people are so foolish as to fight against Jesus Christ. Fall upon the stone, fall upon Jesus Christ! You'll find you'll be broken; better that you do that than in judgment have Him fall upon you and be ground to powder.

예수께서 그 돌에 관하여 말씀하시되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흠으리라.”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두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그에게 따르거나 아니면 그를 거역하여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져 가루를 만드는데는 것입니다. 그의 창조주와 타투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대항하여 싸웁니다. 돌 위에 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위에 떨어집니다. 당신 자신이 깨어진것을 발견할것입니다. 그의 심판이 당신에게 떨어져 가루로 되는것보다 당신이 자신을 심판하는것이 낫습니다.

Now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the same hour sought to lay hands on him; but they feared the people: for they perceived that he had spoken this parable against them (20:19).

They got the message. They knew that He was referring to them, and so they were actually wanting, wanting desperately to arrest Him at this point. And yet, because of the popular acclaim of the people, they did not do it.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20:19)

그들은 메시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시점에서 필사적으로 예수를 체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로 인하여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And so they watched him, and they sent forth spies, which should feign themselves to be just men, that they might take hold of his words, in order that they might deliver him to the powers and authorities of the governor (20:20).

They're now going to try and trap Him so that they can accuse Him of sedition or of rebellion against Rome and turn Him over to the governor.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20:20).

이제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함정에 몰아 넣어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선동이나 반역죄로 고소하여 그를 총독에게 넘겨 주려고 합니다.

And so they asked him, saying, Master, we know that you say and teach the truth, and you do not accept the person of any, but you teach the way of God truly (20:21):

In other words, "You're no respecter of man's persons. You are a straight shooter. We know this. We know that You don't bow to man, that You tell the truth, You speak the truth. Therefore,"

Is it lawful for us to give taxes to Caesar, or not? (21:22)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20:21):

바꾸어 말하자면,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씀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압니다. 우리가 알기에 당신은 사람에게 굽신 거리지 않고 바른 말씀을 하며 진리를 말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 (21:22)

If Jesus says, "No, it is not lawful for you to give taxes to Caesar," immediately, they'll run to the Antonio fortress, call for the Roman centurion and have him come down and arrest Jesus for advocating a tax rebellion against Caesar. If Jesus says, "Yes, it is lawful for you to pay taxes to Caesar," these zealots who would not recognize the power of the Roman government, who hated these taxes that were levied by Rome...and there was a certain tax that was levied upon every man just for the privilege of living...this was the tax they were referring to. It wasn't much of a tax, but it was just to show the Roman authority. And so they felt that they had Jesus cleverly trapped; either way, He's wrong. And so He said, "Show me a coin."

만일 예수께서 “아니야, 가이사에게 세금내는것은 부당한것이야” 라고 하신다면 그들은 당장에 안토니오 성곽에 쫓아가서 백부장을 불러 내려와 가이사에게 세금내는것을 반대하는 예수를 체포하라고 할것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그럼,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것이 합당하지” 라고 하신다면 열성 당원들은 로마 정부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고 로마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또 로마정부 지배하에 사는 생활의 특권에 대한 세금은 모든 사람에게 부과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세금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세금이라기 보다는 로마제국의 권위를 보여주는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기롭게 예수를 함정에 몰아 넣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하나 저렇게하나 그가 틀릴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동전 하나를 내게 보이라” 고 하셨습니다.

Show me a penny. Whose image, superscription does it have on it? And they answered and said, Caesar's. And he said unto them, Render therefore unto Caesar the things that are Caesar's, and unto God the things that are God's (20:24-25).

If it's got Caesar's image on it, give it to Caesar. But He added, "You should be rendering unto God the things that are God's."

And they could not take hold of his words before the people: and they marveled at his answer, and they held their peace. And then there came certain unto him who were Sadducees, who deny that there's any resurrection; and they asked him, saying, Master, Moses (20:26-28)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뉘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20:24-25).

만일 가이사의 화상이 거기 있거든 그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러나 그가 덧붙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히 여겨 잠잠하니라.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찌니라 하였나이다 (20:26-28).

Now, the Sadducees were materialists. They accepted as authoritative only the five books of Moses. They rejected the prophets; they would not accept them as a part of the scriptures. Only the five books of Moses did they consider to be divinely inspired. And so if you would get into an argument with them and you would quote from the Psalms or quote from the prophets, they would reject it as not being authoritative. Only the five books of Moses. So, they said,

Moses wrote unto us, If any man's brother die, having a wife, and he die without children, that his brother should take his wife, and raise up a seed unto his brother. Now there were therefore seven brothers: and the first took a wife, and he died without children. And the second took her as wife, and he died childless. And the third, and in like manner the seven also: and they left no children, and they all died. Last of all, the poor woman died too. Therefore in the resurrection whose wife of them is she? for all seven had her as their wife (20:28-33).

사두개인들은 물질주의자 들입니다. 그들은 단지 모세 오경만 권위있는 책으로 받아 들입니다. 그들은 예언서는 거부하며 성경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단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들과 토론 할때 시편이나 예언서에서 인용하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찌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세째가 저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뉘 아내가 되리이까?(20: 28-33).

The endeavor was to make the resurrection seem so ridiculous that people would say, "Well, that's stupid, that's foolish," and thoroughly discount the idea of the resurrection. There have been those who have done the same thing today, only in a little different way. They hypothesize that back in the days of the wild

West, when a man was shot in a gun battle and they went out and just dug a shallow grave and buried his body, that as his body decomposed...we know the body is made up of chemicals and elements...and as the body decomposed, these chemicals just actually went into the soil, became a part of the soil. And the prairie grass, its little roots, went down into the soil and the chemicals of this decomposed body were picked up in the roots of the prairie grass and, of course, came up through the root system and into the grass itself, nourishing the grass.

그 노력은 부활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사람들이 “그거 바보같아, 어리석은 소리야’ 라고 말하게 만들어 부활을 철저히 저하시키려는 수작입니다. 오늘날에도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부 활극의 시대로 돌아가서 가정을합니다. 한 사람이 싸우다가 총에 맞았습니다. 깊이 않은 무덤을 파고 그의 시체를 묻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대로 시체는 여러 가지 화학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시체가 분해될때 이 화학원소는 땅에 흡수되어 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잔디의 뿌리가 그 흙으로 번져가서 시체에서 나온 원소를 흡수하여 잔디의 뿌리에 들어가고 물론 뿌리를 통해서 잔디가 영양을 받아 자랍니다.

And the cows came and ate the prairie grass that has the chemicals of the decomposed body of this man who was shot in the gun battle. And the cows gave their milk that contained part of the chemicals from the decomposed body and I drank that milk. And thus, those chemicals have become a part of my body now. So that in the resurrection, in what body are these chemicals going to go, because they've been a part of many bodies? And they've tried to make the idea of the resurrection seem ridiculous by these hypotheses that they have created. Now Jesus said, "You err because you do not know the resurrection or the power of God." In the resurrection there will be no marrying or giving in marriage. But we will be as the angels, who neither marry, nor are given in marriage.

그 다음에 소가 잔디 밭에 와서 싸움에서 죽은 이 사람의 시체에서 나온 화학원소를 섭취한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에서 나온 화학원소가 들어있는 우유를 내가 마셨습니다. 이제 그 화학 원소들이 내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활할때 이 화학원소는 누구의 몸에 가게 됩니까? 지금은 그 원소들이 내 몸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 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가정(假定)을 만들어 가지고 부활을 우스꽝스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부활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As I understand God's purpose for marriage, it is to establish a beautiful healthy environment for children to be raised, to be brought into the world. The basic plan for marriage, that we might reproduce, that we might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replenish the earth. Now, in heaven the angels do not reproduce. Thus, no need for marriage. We

will not be reproducing, thus, no need for marriage. We will be as the angels are. A lot of questions... "Will we know each other, then, in heaven?" Of course we will; we're not going to be more stupid there than we are here! The Bible says we will know even as we are known.

내가 이해하는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을 기르는 아름답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것입니다. 결혼을 위한 기본적 계획은 재생산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땅에 충만하게 되는것입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은 재 생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재 생산하지 않으며 결혼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천사와 같게 됩니다.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서로를 알아보니까? 물론, 서로 알아보죠. 우리가 여기에서는 바보스럽지만 천국에서는 훨씬 더 똑똑해질것입니다. 성경은 주께서 나를 아신것 같이 나도 온전히 알리라고 하십니다.

"But what kind of relationships will we have?" Deeper, richer than any we could ever experience on the earth. Now just how, when all of these relationships, God has not really gone into details with us. He's just told us that we'll be as the angels. Now, there are some poor people that feel, "Well, if I can't be married, I don't want to go there." Well, the alternative is not so pleasant. And there's nothing that says you're going to be married there either.

"그러나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됩니까?" 우리가 이땅에서 경험했던것보다 훨씬 더 깊고 부요한 관계를 가질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않은 이관계가 언제 이루어 집니까? 주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천사 같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만일 내가 결혼을 할수 없게 된다면 나는 거기에 안가고 싶어" 라고 느끼는 한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대안은 그렇게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당신이 거기서 결혼하게 되리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You say, "But what about that milk I'm drinking?" I'm not going to have this body in heaven. We know that when the earthly tent, this body, is dissolved, we have a building of God not made with hands, eternal in the heavens. I'm going to get a new body, a building of God not made with hands. So whatever happens to this body, I could care less. Someone said, "Well, what about cremation?"

당신이 말하기를 "내가 마시던 그 우유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늘나라에서는 이 몸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나의 장막인 이 몸이 무너지고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을 가지게 되는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화장하는것을 어떻게 생각 하세요?"

They can do what they want. You know that when this earthly tent is dissolved, and if they do it by cremation it'll be dissolved in thirty-seven minutes. If they let the

natural processes go, it'll take a little longer. But I will have moved out and have moved into my new house, the building of God not made with hands, eternal in the heavens. Jesus said,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 I'm going to prepare a place for you." You say, "Oh, but what about the resurrection of our bodies?" Well, what about them?

그들이 원하는대로 할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질때 그것을 화장하면 37분이면 완전히 분해됩니다. 만일 자연적인 과정을 거치면 좀더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나는 이사를 나와서 손으로 짓지 않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이사할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당신은 “오, 그렇지만 우리의 부활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어쨌단 말인가요?

Paul the apostle said, "Some will say, 'How are the dead raised and what kind of a body will they have?'" And he said, "Don't you realize that God teaches resurrection in nature? For when you plant a seed into the ground the seed does not come forth into new life until it first of all dies, and then the body"...and listen carefully..."the body that comes out of the ground is not the body that you planted" (I Corinthians 15:35-37). I feel sorry for you that are so in love with your body that you want to carry it on into the new kingdom. "For the body that comes out of the ground is not the body that you planted, because all you planted was a bare grain and God gives it a body that pleases Him. And if it pleases God, you can be sure it's going to please me. So is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Paul asserts, "for we are planted in corruption and we will be raised in incorruption. We are planted in weakness; we will be raised in power. We are sown in dishonor; we'll be raised in glory. We are planted as a natural body; but we'll be raised as a spiritual body. For there's a natural body and there's a spiritual body, and the glory of the terrestrial differs from the glory of the celestial. And even as we have born the image of the earthen and have been earthy, so shall we bear the image of the heavens" (I Corinthians 15:37-44).

사도 바울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라.” 그는 또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연을 통하여 부활을 가르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씨를 땅에 뿌릴때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 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고전 15:35-37). 나는 당신이 당신의 육체를 새 나라에 가져가기를 원할 정도로 애착심을 많이 가진것을 볼때 안타깝습니다. 당신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형체를 주십니다. 만일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한다면 그것은 틀림 없이 내게도 기쁠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주장합니다, “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고전 15:37-44).

So, the body that comes out is not the body that was planted. All we planted was a bare grain. God gives it a body that pleases Him. So I'm really quite interested in that new model and all of the gadgets, the capacities of that new model. It's probably just fantastic. As this corruption puts on incorruption, and this mortal puts on immortality. For you see, God created this body out of the earth for the earth, of the earth, earthy, designed it for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of the earth. The atmosphere around the earth is made up of seventy-nine parts of nitrogen, twenty parts of oxygen, and one part of neon and other gases.

나타나는 형체는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저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나는 모든 기능을 가진 새 모형에 대단히 흥미를 느낍니다. 그것은 아마 대단히 훌륭할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몸은 흙으로 빚어져서 이 지구의 환경 조건에 적합한것입니다. 이 지구 주변의 대기층은 79%의 질소와 20%의 산소와 1%의 네온과 다른 기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Now when God made my body, He designed it so that it needed this 79:20 ratio in the atmosphere. It operates well under it. If He put more oxygen in, my heart would beat faster and I would die sooner. More nitrogen, it would have the opposite effect, but I'd still die sooner. My heart would go slower. If He put equal parts of nitrogen and oxygen in the atmosphere, we'd all go around like a bunch of laughing maniacs, because that's nitric oxide, which is laughing gas in the dentist chair. So we'd all go around with uncontrollable laughter. So He designed the body for the conditions of the environment of the earth. But to come into the heavenly scene, I need a body that is designed for that environment. And so God has a new body prepared for me, and one day my spirit and soul are going to move out of this body into the new body that God has. And with Paul, I'll say, "Oh, death, where is your sting? Oh, grave, where is your victory?" We have been caused to triumph over them through Jesus Christ. Thanks be unto God who gives us that continual victory through Jesus our Lord.

하나님이 내 몸을 만드실때 대기권에 있는 이 79-20의 비율의 공기를 필요로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잘 작동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 심장에 더 많은 산소를 넣으신다면 나는 빨리 죽게 됩니다. 더 많은 질소를 넣으면 그 반대 효과가 나타나지만 여전히 빨리 죽게 됩니다. 내 심장은 천천히 돌아갈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똑 같은 분량의 산소와 질소를 내 심장에 넣으시면 나는 돌아 다니면서 실 없이 웃는 사람이 될것입니다. 왜냐하면 질산은 치과 의사들이 사용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돌아 다니면서 걸잡을수 없이 웃을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이 지구의 환경조건에

맞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려면 그 환경에 맞도록 설계된 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새 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내 영혼이 이 몸을 벗어나 하나님이 만드신 새 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내가 말하노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끊임 없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So, they did not understand. And so,

Jesus said, The children of this world marry (20:34),

That is, in this age, in this time, they marry.

and are given in marriage: but they which shall be accounted worthy to obtain [that age,] or that world, and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neither marry, nor are given in marriage: neither can they die any more (20:35-36):

그들은 그것을 알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20:34),

바꾸어 말하자면, 이 세대, 즉,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결혼합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20:35-36).

My new body is indestructible, eternal in the heavens...the building of God not made with hands, eternal in the heavens. So, you better like your new one, because that's where you're going to be.

for they are equal unto the angels; and are the children of God, being the children of the resurrection (20:36).

Uh-oh, wait a minute! You said something, Jesus. These guys don't believe in the resurrection!

하늘에 있는 나의 새 몸은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것이며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새 집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곳이 당신이 (영원히) 거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20:36).

어-오, 잠깐만! 예수님, 당신이 뭐라고 하셨죠. 이 친구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That the dead are raised, even Moses showed at the bush (20:37),

You see, these men, only accepting the first five books of the Old Testament, held a position that there was no resurrection. And though there were many arguments prior to the time of Christ as others were seeking to prove the resurrection to them, because they only accepted Moses as authoritative, no one had ever offered them from the writings of Moses any proof of the resurrection. So Jesus goes right back to Moses. "Now that the dead are raised, even Moses showed at the bush,"

when he calleth the Lord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20:37).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20:37)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은 구약성경의 첫 다섯권만 받아 드리며 구원이 없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기 이전에도 그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려는 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오경만 권위있는 책으로 받아들이므로 아무도 모세의 오경에서 부활을 증명하는 어떤 글도 제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모세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죽은자가 일어났고 모세까지도 숲에 나타나 보였습니다.”

모세도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20:37).

Jacob, at the time that Moses stood before the bush, had been dead for 400 years. Isaac and Abraham even longer. And yet, God, when He spoke to Moses out of the bush, said, "I am the Lord. I am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And Jesus adds,

He is not the God of the dead, but of the living (20:38):

모세가 떨기나무앞에 섰을때는 야곱이 죽은지 40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물론 이삭과 아브라함은 더 오래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20:38),

Declaring that 400 years after their recorded deaths, Abraham, Isaac and Jacob were still alive in another dimension, another sphere. But still alive, because God is the God of the living, not the God of the dead. And the scribes, when they heard that they said, “Hey, that's all right.” They had never been able to argue their case with the Sadducees. But when they heard that argument, they were really pleased at that. "Hey, that's all right! You nailed 'em, you got 'em." And so, they answered Jesus saying,

Master, you have said well (20:39).

That's good.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죽음이 기록된 400년후에 그들이 또 다른 차원에서 다른 별에서 아직도 살아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것을 들었을때 말하기를, “그게 옳아!”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경우를 사두게인과 다룰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는 그로 인하여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20:39).

그거 속이 시원합니다!

And after that they dared not to ask him any more questions. And so he said unto them, How say they that Christ is David's Son? (20:40-41)

Now one of the titles for the Messiah was Son of David. Last week you remember when we were in Jericho, and Jesus was entering the city, there was the blind man who cried out, "Jesus, Thou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Son of David was a Messianic title, because they were looking for some descendant of David to arise in power and in authority to establish the kingdom and to overthrow the Roman rule. "Thou Son of David": a common title of the Messiah. So He said unto them, "How is it that you say that the Messiah..." and the word *Christ* is the Greek for the Hebrew *Messiah*... "How is that you say the Messiah is David's Son?"

저희는 아무 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으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20:40-41).

메시아의 호칭중의 하나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 로 들어가실때 한 소경이 “예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붙잡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던것을 기억 하실겁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호칭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후손이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일어나 왕국을 세워 로마의 통치를 넘어뜨릴것을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그래서 그는 저희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메시아라 하느냐?...” 그리고 그리스도 (**Christ**) 는 히브리어의 메시아 (**Messiah**) 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David himself said in the book of the Psalms (20:42),

That is in Psalm 110,

The Lord [that is Yahweh] said unto my Lord [my Adonai], Sit thou on my right hand, till I make thine enemies thy footstool. David therefore called him Lord, how then could he be his son? (20:42-44)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20:42),

그것은 시편 110 편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의 발등상으로 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20:42-44).

You are dealing with a culture that is a very strong patriarchal culture, the father rules. No matter how old he is, as long as he's living he rules over the household. You can be married and have your own grandkids, but if your dad is still alive, he rules. No father would ever call his son "Lord." That was a title for the father, for the patriarch of the family. He ruled. So no father would ever say to his son, "Lord," using that title. So Jesus said, "Look, if he's a son of David, how is it that David called him 'Lord' if he's his son?" And, of course, they had no answer.

우리는 아주 강한 족장제도 즉 아버지가 집안을 다스리는 문화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드라도 그가 살아 있는한 모든 가구를 그가 다스립니다. 당신이 결혼해서 당신 자신의 손자를 가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의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신다면 그가 다스립니다. 자기 아들을 “주님” 이라고 부르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것은 족장제도에서 아버지의 칭호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다스리면서 아들에게 “주님” 이란 칭호로 부르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보라, 그가 다윗의 후손이라면 어찌 다윗이 그를 ‘주님’ 이라 부렀느냐?” 물론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Then in the audience of all the people he said to his disciples (20:45),

And you know, He turns to His disciples now, all the people listening in, He said,

Beware of the scribes, which desire to walk in long robes, and love greetings in the markets, and the highest seats in the synagogues, and the chief rooms in the feasts; which devour widows' houses, and for a show make long prayers: the same shall receive greater damnation (20:46-47).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0:45),

주께서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20:46-47).

Beware of those who seek to make a public show, for a pretense make long prayers, devour widows' houses, send out computerized letters filled with deceit and fraud to the little women on Social Security, asking, "Go down to the bank and borrow some money to send to them to help them out of this emergency;" who love the honor and the greetings and the palavering of man. Pray for them, because Jesus said they will receive the greater damnation.

대중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삼가 조심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사회보장의 혜택으로 사는 늙은 할머니들을 거짓과 속임으로 편지를 컴퓨터로 찍어 보냅니다. 구걸하기를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위기를 헤어 나도록 도와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들은 명예를 원하고 인사하며 아첨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받는 판결은 더욱 중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Chapter 21

And he looked up, and he saw the rich men casting their gifts into the treasury. And he saw also a certain poor widow casting in thither two mites (21:1-2).

A mite was one-sixteenth of a penny. In other words, it took sixteen mites to make a penny. Two mites would be an eighth of a penny. Now here are these rich people putting in their great gifts and this certain poor little widow goes up...and there in the temple the offering things are sort of like a horn and they would drop them in...and the poor little widow cast in her two mites.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렵돈 넣는 것을 보시고 (21:1-2).

한 렵돈은 십육분의 일 쟈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16 렵돈이 일 쟈트가 됩니다. 두 렵돈은 팔분의 일 쟈트가 됩니다. 여기에 많은 돈을 연보께에 넣는 부자들도 있었으며 이 가난한 과부는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연보를 하는것은 마치 나팔을 부는것 같으며 그들은 돈을 떨어뜨렸고 이 과부는 두렵돈을 던져 넣었습니다.

And he said, Of a truth I say unto you, that this poor widow has cast in more than all of them: for all of these have of their abundance cast into the offerings of God: but she of her penury hath cast in all of the living that she had (21:3-4).

So, an interesting thing in God's economy is not the amount that you give, but what it costs you to give. So, many who are giving less in God's economy are giving more. The amount is immaterial. What's the sacrifice? What's it costing you to give?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21:3-4).

흥미있는 일은 하나님의 경제는 당신이 바친 액수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치는데 따르는 희생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게 바치더라도 하나님의 경제에서 보면 더 많이 바칩니다. 액수가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희생이 얼마나 되나? 바치는데 따르는 희생은 얼마나 되는가?

When David was wanting to buy the threshing floor of Araunah, because the angel of the Lord had stopped there at the threshing floor and David had wanted to buy it and to offer a sacrifice unto the God, Araunah says, "Take it, man, it's yours." And David said, "No, I will not give to God that which costs me nothing." And David insisted on buying it. He wouldn't take it as a gift, because he wanted to give it to God. And he said, "I won't offer to God that which costs me nothing." What does it cost you to give? That's what God measures the gift by.

하나님의 천사가 타작 마당에 멈추었으므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기를 원했을때 다윗은 그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라우나는 말하기를 "이것을 왕께 다 드리나이다" 라고 했을때 다윗은 "아니야, 내가 값을 치루지 않고는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사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선물로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값없이 내 하나님에게 드리지 아니하리라."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려할때 따르는 희생은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바친것을 그렇게 계산하십니다."

And as some of them spake of the temple, how it was adorned with goodly stones and gifts (21:5),

In "The Wars of the Jews" by Josephus, book number 5 and chapter 5, he gives an interesting description of the temple in Jerusalem; of these great white columns of solid marble, each column a single stone of solid white marble. And how along the fascia all of these gold shields, so that if you would look at the temple, the reflection of the gold was so tremendous that it was like looking at the sun itself.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현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가라사대 (21:5),

“요세푸스가 쓴 “유대인의 전쟁” 이란 책 5권 5장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관한 재미 있는 묘사가 있습니다. 거대한 흰색의 대리석 기둥들에 관한 묘사와 흰색의 대리석의 한개의 돌로 된 기둥에 관한 묘사입니다. 금을 입힌 처마밑의 띠 모양이 얼마나 나란한가 또 성전을 바라보면 금의 반영이 너무나 훌륭하여 그것이 마치 해를 쳐다 보는것 같다고 합니다.

And you couldn't just look at the temple because of these gold plates when the sun was reflecting off of it. It would be hard on your eyes and like looking in a mirror. And he describes the beauty and the glory of this temple that was built by Herod, describing some of the stones as weighing as much as 180 tons. And so some of them were speaking to Jesus of the temple, how it was adorned with these goodly stones, these beautiful marble towers, and the gifts, the gold and the silver and the brass gates and all that were around it. And He said,

As for these things which you are looking at, the days will come in the which there shall not be left one stone upon another, that shall not be thrown down (21:6).

햇빛이 이 금판에 반사하므로 성전을 바라 볼수가 없습니다. 마치 거울을 쳐다보는것 처럼 눈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는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묘사하며 심지어 어떤 돌은 180 톤이나 나간다는것을 설명합니다. 또 그들중 어떤 이들은 예수에게 성전에 관하여 말할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돌로 장식되었으며 아름다운 대리석 탑과 선물들과 사방에 달린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든 문들에 관하여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 하시기를,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21:6).

Today when you go to Jerusalem, as you go up the walk next to the western wall that leads on to the temple mount area, they have excavated the area to the right side of this walk. They have excavated down to the pavement that was the Roman street that went through the bottom of the Teropian Valley. And as they have excavated down to this Roman street, street level at the time of Christ, down there on the pavement which

was made of great huge stones, there are these huge stones that have been pushed over the wall and that cracked the pavement down below.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 (서편의 담) 을 하하여 걸어가서 성전대지로 가게 되며 걸어 가면서 오른쪽을 보면 그곳의 일부를 사람들이 발굴하기 위해 파헤쳐 놓은것을 볼수 있습니다. 트로피안 계곡의 바닥에서 부터 로마 거리인 포장된곳까지 발굴해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로마 거리까지 발굴할때 그것이 그리스도 당시의 거리로서 거대한 돌들로 도로를 포장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큰 돌들은 성전의 담벽에서 아래쪽으로 밀어 내려서 포장한 돌들을 깨뜨린것들입니다.

And you see them as they are just lying there in disarray as they fell and were pushed over the wall and crashed into the valley several hundred feet below, breaking the pavement down below. I've climbed down in to that area and I've touched these big stones and I've marveled at them. Because as I looked at them, I realized I was seeing the fulfillment of the prophecy of Jesus Christ. "Not one stone was left standing upon another." They filled the Teropian Valley with stones that they pushed over from the temple, watching them crash below.

그 돌들을 벽위로 밀어서 수 백 피트 아래로 떨어져 밑에 있는 포장도로를 깨뜨렸고 돌들이 무질서하게 거기에 있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는 그 지역에 내려가서 그 큰돌들을 만져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돌들을 볼때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의 성취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 뜨리우리 라." 로마 병정들이 성전에서 돌들을 밀어 내릴때 그것들이 아래로 부닥치며 떨어지는것을 보고 있었으며 그 돌들이 트로피안 계곡을 채웠습니다.

When we were up in the Grand Canyon, there was one area that I had a bunch of kids. And they were starting to push stones over this canyon cliff, because there was about a 3,000-foot drop before they hit. And it was terrifying to see the momentum that these stones would develop before they hit the bottom, and the crash, of course, echoing up the canyon. But here were the Roman soldiers, when they destroyed the temple, pushing the stones over.

우리가 그랜드캐년에 갔을때 여러 아이들을 데리고 어떤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캐년 절벽으로 돌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절벽이 3,000 피트의 낭떠러지 였기 때문입니다. 이 돌들이 바닥에 부딪지기전에 생기는 운동량은 어마어마해서 바닥에 부딪치는 소리는 계곡 골짜기에 메아리칩니다. 그러나 여기 로마 병사들은 그 돌들을 밀어 내려 성전을 훼손시켰습니다.

And that whole Teropian Valley was filled with the debris and the stones that they pushed over the wall at the time of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But it fulfilled

literally the prophecy of Jesus, as He said, "You look at these stones, but there shall not be one left standing upon another that will not be thrown down." Thus, as you go up on the temple mount, there is no evidence anywhere of where the temple of Solomon stood. The temple mount that he built is there. But there is no evidence at all of the place of the temple, because not one stone was left standing upon another.

온 트로피안 계곡이 성전을 훼손할때 벽에서 밀어낸 돌들과 쓰레기로 메워졌습다. 그러나 예수께서 "돌 하나도 돌위에 남지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고 예언 하신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따므로 성전대지에 올라가 보면 아무곳에도 솔로몬의 성전이 서있었던 증거가 없습니다. 그는 성전을 그곳에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장소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그것은 돌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nd so they asked him, saying, Master, when shall these things be?
(21:7)

What things? When the temple is destroyed and the stones are thrown down.

and what sign will there be when these things (21:7)

That is,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in Jerusalem.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21:7),

무슨 일들이 일어날것입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돌들을 밀어 내리는 때가 언제
입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21:7).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파괴입니다.

what will be the sign when these things come to pass? And so he said unto them, Take heed that you be not deceived: for many shall come in my name, saying, I am; and that the time is drawing near: but go ye not therefore after them. But when you shall hear of wars and commotions, don't be terrified: for these things must first come to pass; and the end is not yet. Then he said unto them, Nation shall rise against nation, kingdom against kingdom: And there will be great earthquakes in different places, and famines, and pestilences; and fearful signs and great signs shall there be from heaven. But before (21:7-12)

Now He's going on to the times of the end with these signs of the great earthquakes in different places, the famines, the pestilences, the fearful signs in heaven, and the worldwide state of wars.

이런 일이 이루어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왔다 하겠으나 저희를 좃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꺾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 가려니와 (21:7-12)

이제 그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며 세계적으로 전쟁이 있으리라.

But before all of these, they shall lay their hands on you (21:12),

Coming back to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and they will persecute you, delivering you up into the synagogues, and into the prisons, and you'll be brought before kings and rulers for my name's sake. And it shall turn to you for a testimony (21:12-13).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21:12),

성전의 파괴로 돌아가서,

꺾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 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21:12-13).

Jesus said, "Look, you're going to get arrested, you're going to be hauled before the kings and all for My name's sake, but that's all right. It's going to give you a chance to witness." And I find it fascinating that every time Paul was brought before a judge or before the king, he took the opportunity to give a witness for Jesus Christ. "Oh, King Agrippa, I count it a privilege to be able to share with you what's happened to me, because I know that you've studied the law of the Jews and you understand these things. And the things that Jesus did weren't in a corner. Now, I myself was like you, I thought to be against this Man, and I was commissioned to arrest Him," and so forth. And he went on and he gave a heavy witness to King Agrippa. "King Agrippa, do you believe? I know you believe." He says, "Paul, wait a minute! Your much learning has made you mad." And King Agrippa says, "Hey, wait a minute! Hold on! You think that you're going to persuade me to be a Christian?" But Paul was trying. Jesus said, "Hey, they're going to bring you before kings, but don't worry. It's going to give you a chance to witness." And Paul used it every time he got before the king.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희들이 붙들려 내 이름으로 인하여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 가리라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이일이 오히려 너희에게 증거할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바울이 재판관이나 임금들앞에 끌려 갈때마다 그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로 삼는것을 보니 너무나 놀랍습니다. “오, 아그립바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아무도 모르는 구석에서 하신것이 아닙니다. 나도 당신처럼 이사람을 반대했으며 그를 체포할 임무를 맡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아그립바왕에게 중대한 일을 증거했습니다,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베스도가 소리쳐 말하기를 “바울아, 잠깐만 기다려라!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리고 아그립바 왕이 말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노력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어 가리니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증거할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임금들 앞에 설때마다 그 기회를 사용하였습니다.

Now, Paul was taken before Nero. There's nothing in the biblical account that tells us what Paul said, but as we study secular history, it would seem that Nero wasn't too bad a fellow. He was actually very anxious to leave his mark upon Rome and to build some monuments in Rome. His castle is a great monument in itself that has been uncovered recently. But Nero wasn't really too awful a fellow until in history he met this fellow Paul the apostle. The first time that Paul was imprisoned in Rome, he had his opportunity. You remember when he was before Festus he appealed to Caesar. And so he was sent to Rome, placed there in prison where he wrote his Philippian epistle and he had his chance to go before Nero.

이제 바울은 네로앞에 끌려갔습니다. 바울이 그에게 한말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없습디만 세속적인 역사를 공부하면, 네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것 같습니다. 그는 실제로 로마에 그의 흔적을 남기고 기념비 세우기를 대단히 갈망했습니다. 그의 성자체가 기념물이었던것을 최근에 고고학적 발굴로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네로는 실제로 사도 바울을 만날때까지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었을때 그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가 베스도앞에서 가이사에게 상고하던 때를 기억 하실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로마로 보냈고 그곳에 있는 감옥에 그를 감금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빌립보서를 썼으며 네로앞에 설 기회도 있었습니다.

Now, you think that the witness he laid on Agrippa was heavy. You can be sure that Paul thought, "Man, if I can convert this pagan to Christianity, what that would do!" And I'm sure that Paul laid on Nero a witness second to none in the history of the church.

그가 아그립바왕에게 증거한것이 막중한 것이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아, 내가 이 이방인을 기독교로 전환 시킬수 있다면 어떻게 될것인가!” 내가 확신하기는 바울이 네로에게 증거한것은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증거였을것입니다.

Secular history records this dramatic personality change of Nero right after the time that Paul laid the witness on him. It was at that same period of time in history that Nero went through a drastic personality change and became a beast. He burned Rome because he wanted to rebuild a new glorious Rome for his credit. And then he blamed the Christians for it. But he became almost a man possessed, insane. I feel that, personally, that he became demon possessed after Paul's witness and his rejection of Paul's witness. I believe that he opened his heart and life to demon possession. And I believe that the things that he did can only be ascribed to a man possessed by an evil spirit. But up until that time of Paul's witness, he wasn't that bad of a fellow, his story.

세속의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네로에게 증거한 이후 그의 인간성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 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로의 인간성에 극적인 변화가 왔고 그가 짐승 처럼 변했던 것이 역사적으로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는 그의 영광을 위하여 새로운 로마를 건설하려고 로마 도시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는 마치 귀신들린 사람 같았고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나의 견해는 바울의 증거후에 그가 그 증거를 거절함으로 인해 귀신 들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믿기에 그는 귀신이 그를 점령하도록 그의 삶과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행한 일들은 오직 귀신 만이 할수 있는 일들이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증거할때까지 역사적으로 볼때 그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So, Jesus said, "Now don't worry about it. It's going to give you a chance to witness." And Paul took that chance every time he got it. And He said, "Don't make up a little speech in advance in your own heart, what you're going to say... 'Well, I'm going to say this and that and the other...'" But He said,

For I will give you a mouth and wisdom, which all your adversaries shall not be able to gainsay nor resist (21:15).

Now don't worry about what you're going to say, because I'll give you the words in that time. And you can wipe 'em out.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염려하지 말라, 증거할수있는 기회가 올것이니라.” 바울은 기회가 올때마다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셔서 “무슨 말을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나는 이것과 저것과 또 다른것들을 말하겠노라...’” 그러나 주께 말씀 하시되,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재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21:15).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내가 할 말을 주리라. 생각을 다 지워 버리십시오.

And you will be betrayed both by your parents, and your brothers, and your kinfolk, and your friends; and some of you they will cause you to be put to death (21:16).

Fox's "Book of Martyrs" relates to us that sad portion of the history of the church.

And ye shall be hated of all men for my name's sake. But there shall not a hair of your head perish (21:17-18).

They may kill your body, but after that, they have no power.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21:16).

폭스 (Fox) 의 "순교자의 책 (Book of Martyrs)" 은 교회 역사의 슬픈 부분을 우리와 연관 시켜줍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21:17-18).

그들이 당신의 몸은 죽일수 있지만 그 후에는 그들에게 어떻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And in your patience possess ye your souls (21:19).

What an important bit of instruction! "In patience." God help us! We're so impatient when it comes to the things of God. "In your patience possess ye your souls." God, give me patience!

And when you will see Jerusalem encircled with armies (21:20),

Which happens within forty years.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21:19).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가! "인내로."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려고 할때 우리에게는 참을성이 너무 없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21:20),

그일이 40년내에 벌어집니다.

then know that the desolation is near. Let them which are in Judea flee to the mountains; and let them which are in the midst of it depart out; and let them that are in the countries enter in there too. For these are the days of vengeance (21:20-22),

Rome is going to take out here vengeance upon the rebellion.

and all of the things which are written may be fulfilled. But woe unto them that are with child, and to those that are nursing, in those days! for there shall be great distress in the land, and wrath upon this people. And they shall fall by the edge of the sword, and they will be led away captive to all nations: and Jerusalem shall be trodden down of the Gentiles, until the time of the Gentiles be fulfilled (21:22-24).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도 망할찌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찌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찌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21:20-22).

로마가 그들의 반역에 대해 보복하려고 나올것입니다.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21:22-24).

So, in 70 A.D., when Titus came with the Roman troops and besieged Jerusalem, killed 1,100,000 Jews, carried away the remaining 97,000 as captive, Israel ceased to be a nation. They were carried away captive into all nations and the prophecy of Jesus was fulfilled. And Jerusalem from that day had been trodden down by the Gentiles until June of 1967.

그래서 주후 70년에 디도 장군이 로마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백 십만명을 죽였고 남은자 97,000 명은 포로로 잡아 갔으며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그날부터 예루살렘은 1967년 6월까지 이방인에게 밟히게 되었습니다.

Now, as I understand prophecy, in June of 1967 the time of the Gentiles came to an end. You say, "Well, what are we in now?" Just a space gap. I believe that the Lord is going to begin a very special work with the nation of Israel very soon. There is a seven-year period of prophecy that is not yet been fulfilled, Daniel's seventieth week. And that seven-year period of God's Spirit upon the nation of Israel and dealing with them, and their restoration must come.

내가 예언을 이해 하기에는 1967년 6월에 이방인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당신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기에 살고 있는가요?” 라고 질문하겠죠. 시간 간격이 조금 있습니다. 주께서 짧은 시간내에 이스라엘 나라에게 아주 특별한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70 이레의 예언중 7년이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았습니니다. 그 7년이란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성령의 기간이며 그들을 다루어 반드시 회복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That period has not yet begun. But in 1967, for all practical purposes, when Jerusalem became again the territory of the nation of Israel, when they drove out the Jordanian troops and they took the city of Jerusalem, at that point, according to the words of Jesus, Jerusalem shall be trodden down by the Gentiles until the time of the Gentiles be fulfilled. Since that time, it's just been a short period of God's grace giving others that opportunity to become a part of God's kingdom before He gathers His church together unto Himself. So, we're just living in a period of God's extended grace to man. But even as God said in the time of Noah, "My Spirit will not always strive with man," I believe that God's striving with men has just about come to an end. The time of the Gentiles fulfilled.

그 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요르단군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장악한 1967년에 그것이 이스라엘 국가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목적을 생각할때, 예수의 말씀에 따르면, 그 시점에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히리라고 하셨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그에게로 모으시기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수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짧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연장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에도 말씀하신것과 같이 “나의 신이 영영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 하리라” 내가 믿기에는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씨름하는것이 거의 끝장이 난것 같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왔습니니다.

And now Jesus goes ahead to give signs of His return. And He said,

There shall be signs in the sun, and in the moon, and in the stars; and upon the earth distress of nations, with perplexity (21:25);

Signs in the heavens. We know that the comet known as Halley's Comet will be returning into our area of the solar system in just a couple of years. And with the advent of the return of Halley's Comet, there's been a lot of writing in the astronomy magazines and a lot of speculation about asteroids and about comets, and the possibilities of a comet or an asteroid striking the earth. And it is interesting that a large part of the physical makeup of comets is cyanide. And it is also interesting that in the book of Revelation, "he saw a star fall from heaven and strike the earth and all of the fresh waters became bitter; they were called wormwood because they were bitter." It sounds

like it could almost be a comet striking the earth and that cyanide poisoning the fresh water systems turning them bitter.

이제 예수께서 그가 재림하실 때 있을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그가 말씀 하시기를,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21:25);

하늘에 징조가 있을것입니다. 이년 이내에 우리가 알고있는 할레의 혜성이 태양계로 돌아올것입니다. 할레의 혜성의 돌아 오는것이 가까워 짐에 따라 천문학 잡지에 소유성과 혜성에 대한 의견들과 소유성과 혜성이 지구와 부딪칠 가능성에 관한 기사들이 많아집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 혜성들의 대 부분의 구성물질은 청산가리라고 합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사실은 계시록에서 "그가 보니 한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지구를 치니 모든 물들의 삼분의일이 쓰게됨을 인하여 썩이라 부르더라." 그것은 아마도 혜성이 지구를 치매 지구의 마시는 물이 청산가리의 독으로 인하여 쓰게될것이라는것 같습니다.

The cyanide taste, of course, is a bitter taste. You might pick up the Astronomy Magazine; I think it was December's issue. It had an interesting issue on comets and their makeup. And, of course, because Halley's is returning, there's just a lot of things that you can read now in the astronomy journals and all about asteroids and comets. And there's always that likelihood that an asteroid is going to strike the earth. In fact, our government is making contingency plans. If there seems to be some threat of a large asteroid striking the earth, of sending a rocket out with a nuclear warhead to try and explode it in space so that it won't get to the earth. And these kind of things are things that are being thought of by the science. Signs! "...and the sun and the moon and the stars."

물론 청산가리의 맛은 씹니다. 천문학 잡지 12월호를 한번 읽어 보십시오. 거기에 실린 혜성과 구성물질에 관한 기사가 재미있습니다. 할레이 혜성이 돌아오기 때문에 천문학 잡지에 소유성과 혜성에 관해 읽을만한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유성이 지구를 칠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그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큰 소유성이 지구를 칠 위협을 느끼게되면 핵탄두 미사일을 보내어 그것이 지구에 오기 전에 공중에서 폭발시키려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일입니다. 징조들! "...해와 달과 별들에는 징조가 있겠고..."

"On the earth there will be distress of nations with perplexity." That means that the distress of nations is problems that nations will be facing. The word *perplexity* in the Greek is "no way out." Now the government is searching for a way out. We're going to cut taxes and we're going to balance the budget. Government has become burdensome. In fact, government has become so expensive, we can't afford it anymore. And that's the problem that we've hit.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중에 곤고하리라.” 그것은 나라의 곤고함이 민족들의 당면할 문제가 되리라는것으로 보입니다. 헬라어로 혼란이란 말은 “나갈 길이 없다” 는 뜻입니다. 현재 정부는 헤쳐 나갈길을 찾고 있습니다. 세금을 깎고 균형된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너무 비싸졌고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문제입니다.

There's no way that we can afford government any longer. It's a monster that has just continued to grow, gobbling up everything, until it has grown to such an extent that there are not enough people left to support the government workers. I read a statistic someplace, and I don't know the accuracy of it. But it said some 49% of the people are on the government payroll some way or another; either through welfare or through jobs that are related to the government. So 51% of the people are productive, and the rest are working for the government, supporting the 49. What are we going to do? What's the answer? There is none. So, what shall we do? Have heart failure.

우리가 더 이상 정부를 유지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괴물처럼 계속해서 자라고 닥치는 대로 삼켜 버립니다.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뒷바침해줄 충분한 사람들이 남지 않는 단계까지 정부는 자랍니다. 어디선가 통계를 읽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49% 의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정부의 돈을 받는 명단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엔 정부의 고용인도 있고 사회보장비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중51% 는 생산적이며 나머지는 정부를 위하여 일하며 49% 를 보조해 줍니다. 우리는 무얼 해야하겠습니까? 대답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얼 해야합니까? 심장마비가 일어나겠습니다.

I thought that this was interesting that it came this week.

the sea and the waves roaring (21:25);

Any of you live at Sunset Beach? Seal Beach?

Men's hearts failing them for fear, and for the looking after of those things which are coming upon the earth: and the powers of the heaven will be shaken. And then (21:26-27),

그것이 이번주에 왔는데 이 사실은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21:25);

누가 썬셀 비치나 썬 비치에 삽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1:26-27),

Of course, He's describing events of the Great Tribulation period here, "And then," after this Great Tribulation,

shall they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a cloud with power and great glory. And when these things begin to come to pass, then look up, and lift up your head; for your redemption is drawing close (21:27-28).

물론, 그가 묘사하는것은 대 환난때에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대환난후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왔느니라 하시더라 (21:27-28).

Now, last October in one of the shopping malls, towards the end of October, I saw them putting them up Christmas decorations. And I said, "Well, Thanksgiving must be getting close." Why? Because I know that Thanksgiving comes before Christmas. And if they're putting up Christmas decorations and Thanksgiving hasn't come yet, then Thanksgiving must be getting close. Because it's got to come before Christmas. Now Jesus is giving you signs of His return. Signs that will happen before His second coming. But if the rapture of the church is to precede the second coming by seven years, then when we will see the signs of the coming of the Lord, we have to say, "Hey, the rapture must be getting close. I see the signs of the Lord's return." That makes the rapture that much closer. So, when you see these things beginning to come to pass, then you look up and lift up your head, for your redemption is drawing nigh.

지난 10월말 한 시장에서 나는 크리스마스 장식하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하기를 “추사감사절이 더 가까운데.” 왜 그런가요? 나는 추수감사절이 크리스마스 앞에 오는걸 잘 알고 있기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는데도 추수 감사절이 아직 오지않았다면 추수감사절이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추수감사절이 크리스마스전에 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그의 재림의 징조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징조 들은 그의 재림 이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나 휴거가 재림보다 7년앞서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징조들을 보게될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여보게, 휴거가 틀림없이 가까웠어.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보이니까 말일세.” 그것이 휴거가 더 가까운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것을 보거든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왔느니라.”

And he spoke to them a parable; Behold the fig tree, and all of the trees; When they now shoot forth, and you see and you know of your own selves that summer is now near end (21:29-30).

And Jesus is basically saying the same thing. If you see the trees start to blossom out and leaf out, you say, "Oh, summer must be getting close." Because I see the trees leaving out, I see the blossoms; summer must be getting close.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21:29-30).

예수께서 근본적으로 같은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나무가 싹이나고 잎이나는것을 보면 “오,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라고 말합니다. 나무의 잎이 나오고 꽃이 피는걸 보면 여름이 가까운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Verily I say unto you, This generation shall not pass away, till all is fulfilled. Now heaven and earth shall pass away: but my words shall not pass away (21:32-33).

We have the solid word of Christ. Now even as Jerusalem was destroyed and not one stone was left standing upon another, and the Jews were decimated and the remainder were made slaves throughout the earth, and Jerusalem went under the hand of the Gentiles...just as all of that was fulfilled, you can be sure that Jesus is coming again. The rest of the prophecies will be fulfilled. God didn't bring it along this far to drop it now. We are moving towards the end. The whole system is moving towards this climax, the return of Jesus Christ in power and glory. But when we see the signs of that return, we know that our redemption is so close. And Jesus affirms it; He says, "Now look,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but not My words."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21:32-33).

우리는 견고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돌위에 돌하나가 남지않드라도, 또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남은 사람들이 온세계에 노예로 잡혀 가며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손에들어간다 할찌라도, 모든 예언이 이미 이루어진것 처럼 예수께서 재림하실것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남아있는 예언도 다 이루어질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포기하시려고 여태까지 끌고 오신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말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가 절정인 권능과 영광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림의 징조를 볼때 우리의 구원이 가까운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확증하십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Take heed to yourselves (21:34),

Now this is a message for you. "Take heed, be careful."

lest at any time your hearts are overcharged with surfeiting, drunkenness, [partying,] the cares of this life, and that day overtake you unaware (21:34).

There is a party spirit in the world today. Be careful you're not caught up in it, and that Day of the Lord catch you by surprise. Be careful of these things. Jesus warns you that these things are going to be like a trap for men. "...drunkenness, surfeiting, gourmet type of eating, cares of this life, so that Day come upon you unaware.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21:34),

이것은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덮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21:34).

오늘날은 파티를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거기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주의 날이 기대하지 않은때에 임할것입니다. 이 모든일에 주의 하십시오. 예수께서 이 모든일이 사람들에게 덮과 같이 임할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술취함과 과식함과 식도락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덮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For as a snare (21:35)

It's a trap.

shall it come upon all of them that dwell upon the face of the whole earth. Watch ye therefore (21:35-36),

The Lord's command to His church to watch.

and pray always, that ye may be accounted worthy to escape all these things (21:36)

덮과 같이 (21:35)

그것은 함정입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깨어있으라 (21:35-36).

주님이 그의 교회에 주시는 명령입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21:36)

All what things? These things of God's judgment that will be coming to pass upon the earth as there are the signs and the sun and the moon and the stars and the heaven shaken, and the earthquakes and the pestilences and the famines... "pray that you'll be accounted worthy to escape all of these things."

that shall come to pass, and to stand before the Son of man (21:36).

모든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때 일어날 일들이며 여러 징조가 있고 하늘에서는 일월 성신이 흔들리며 지상에는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일을 당신이 피하기에 합당하게 여기시도록 기도 하십시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21:36)

Now, in the book of Revelation, chapter 5, John saw a scroll in the right hand of Him who was sitting upon the throne, sealed with seven seals, and it had writing both within and without. "And he heard an angel proclaim with a loud voice, 'Who is worthy to take the scroll and loose the seals?'" And when no one was found worthy in heaven or earth, John began to sob convulsively until the elders said, "Don't sob, John. Behold, the Lion of the Tribe of Judah hath prevailed to take the scroll and loose the seals." "And I turned and I saw Him as a Lamb that had been slaughtered, and He took the scroll out of the right hand of Him who sat upon the throne. And when He did, the twenty-four elders came forth with their golden vials full of odors, which are the prayers of the saints, and they offered them before the throne of God. And they sang a new song, saying, 'Worthy is the Lamb to take the scroll and to loose the seals, for He was slain; but He has redeemed us by His blood, out of every nation, tribe, kindred, tongue and people, and He has made us unto our God kings and priests and we shall reign with Him upon the earth.'"

요한계시록 5 장에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며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자로 봉해있는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들으니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늘 위어나 땅 위어나 땅 아래에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으므로 요한이 통곡하였습니다. 그때 장로중의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였습니다.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것 같았으며 그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더라.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이십 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 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 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Listen to the lyric of the song in heaven. "Worthy is the Lamb; He was slain, He has redeemed us by His blood...out of all of the nations, tribes, tongues and people...made us unto our God kings and priests, and we shall reign with Him upon the earth." These are those who are standing before the Son of man. And the Great Tribulation does not begin until the beginning of chapter 6. "And when He loosed the first seal, the angel said unto me, 'Come. And I saw a white horse coming forth upon the earth, conquering and to conquer with his rider."

하늘에서 부르는 노래의 가사를 들어 보십시오. “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사람들이 인자의 앞에 서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환란은 6장의 시작까지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뢰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And there begins the Great Tribulation period when, after the book is open. But while the book is there in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and when Jesus steps forth to take it, that glorious song of the church, "Worthy is the Lamb," sung by those who are standing before the Son of man, Jesus is saying, "Look, you pray always.

Watch and pray always that you'll be accounted worthy to escape all of these things that are going to be happening upon the earth, that you'll be standing before the Son of man." It is my prayer and anticipation that I will be accounted worthy to be standing with the company of God's redeemed saints in heaven, singing of the worthiness of the Lamb to take the title deed to the earth, and to lay claim to it. I want to be standing before the Son of man. I surely do not want to be down here on this earth when God's wrath is poured out, as Jesus has described a portion of it here, but you find the full description in Revelation chapter 6 through 18.

책이 펴졌을때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책이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있을 동안에 예수께서 그 책을 취하러 나가실때 인자 앞에 서있는 사람들이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노래 “합당하도다, 어린양” 를 부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항상 기도하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이 땅에 일어날 모든일을 피하기에 합당히 여기셔서 인자 앞에 구원받은 성도의 무리들과 함께 서서 이 땅의 소유권을 취하시기에 합당한 어린양을 노래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일부분을 묘사하신것과 같이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 부어실때 나는 정말 여기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대환란의 전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6 장에서 18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in the daytime (21:37)

That's the end of the message,

he was teaching in the temple; and at night he went out, and stayed at the mount which is called the mount of Olives (21:37).

So He crossed the Kidron Valley and went up into the Mount of Olives in the evening.

And all of the people came early in the morning to him in the temple, to hear him (21:38).

예수께서 낮이면 (21:37),

그것이 메시지의 마지막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21:37).

그는 밤이면 기드론 계곡을 건너서 감람원이라는 산에 오라가셨습니다.

So, there was a popular movement towards Jesus by the common people as the chief priest and the scribes and the elders were plotting His death. And so, we move into the final chapters as we get into chapter 22 and Judas' betrayal, the last supper. And we're moving into the final events of Jesus' life, which we will complete next Sunday night, as we finish the book of Luke.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할때 예수를 향한 일반 군중들의 인기가 높아져 갔습니다. 우리가 22장에 들어감으로서 유다의 배반과 최후의 만찬등 그의 생애의 마지막 사건들로 들어갑니다.

Shall we pray? Father, as we look around the world in which we live, and as we look at Your Word and as we see these things beginning to come to pass, we see the nation of Israel existing once again. We see the city of Jerusalem under the control of the nation of Israel. And we see the distress of nations and the perplexities, we see the nation against nation and kingdom against kingdom, the increased earthquakes, these pestilences and famines. Oh Lord, help us that we will be accounted worthy to escape all of these things that are going to come to pass. Oh God, we want to stand in that heavenly throng around the throne of God proclaiming the worthiness of Jesus, our Lord and Savior, who died for us, who redeemed us by His blood and has made us unto

our God kings and priests. Thank you, Jesus, for that redemption that we have tonight.
Oh Lord, may we be worthy to be in that throng. In Jesus' name. Amen.

기도 하십니까? 아버지, 우리가 살고있는 이세상을 둘러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볼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것을 볼때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한번 존재하는것을 봅니다. 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통치하에 있게된것도 봅니다. 여러 나라들의 근심하고 낙담하는것을 보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지진과 질병과 기근이 더 많아지는것을 봅니다. 오 주님, 우리가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하심을 외치며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무리들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속해 주신것을 이 저녁에 감사합니다. 오 주님, 그 무리들 가운데 들어가기에 합당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